

새롭게 움트는 '깨달음의 문학'

「세계명상시선」 「속 벽암록」 禪동화집 등 곧 선보여

선시를 비롯한 선문학에 대한 관심이 기획출판과 창작, 선기문화연구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깨달음을 향한 정신적 체험의 문학화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본격문학이 저조했던 불교출판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족사는 세계명상시선(가제) 시리즈 16권을 기획, 내년 1월중 4권 출판을 시작으로, 내년 12월 4권 모두를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춘 시인(한양대학교 수·영역학과)과 작가 장찬주씨가 곧 작품집을 내놓거나 준비중에 있다.

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소장 홍익식 고려대총장)에서 최근 펴낸 「한국근세 선가문학」(서규태 지음)은 한국사문학에서 차지하는 불교적·선적 전통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민족사의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선시를 비롯해 한국의 불교전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기탄찰리 가브리 미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 기탄찰리 가브리 미라 크리슈나무티는 번역을 마친 상태. 김영식 시인(한·인도문

화연구회)가 번역한 인도문학의 정수 <기탄찰리>는 원어인 벵갈어판을 텍스트로 삼아 타고르의 문학적 향기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기탄찰리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작품으로 1913년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이밖에도 우과나사드 밀라레 박 등은 인도와 티베트 전통문화와 원형이라는 점에서 이들 나라의 세계관과 불교관을 문학·종교사상적 관점에서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민족사 주간 일지스님은 "기



◇ 신동춘 시인

선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양한 출판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불서출판의 새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인은 민족사가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로 펴낼 「기탄찰리」



상'을 통해 곧 펴낸다. 230대 젊은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찾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세계의 프리즘을 통과한 동화의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정도6백년 마스크트를 도안한 강우현씨의 삽화를 곁들여 생활의 심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근세 선가문학」은 15-16세기에 활동했던 설장 보유 휴경 등을 통해 작가와 현실인식, 문화사상, 시론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국문학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던 선가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으로서, 풍부한 자료소개와 체계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출판기획과 창작·연구활동은 90년대 초반 한때 '현실 도파나' '특별한 정신적 체험의 산물'이냐로 한국사단에 일었던 '정신주의'에 대한 논란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그리고 올바른' 정신주의 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모은다.

(정성운 기자)

애송시서 학문적 접근까지 ... '정신주의' 발판 기대

종의 선시관련 불서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 소양을 요구한다면,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는 철저한 대중에 애송될 수 있는 작품과 문학적 향기를 지닌 것들을 묶는 특집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춘 시인은 대표적인 선어록 <벽암록>의 선세계를 현대의 창작원리에 기대어 현대인이 지향할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는

<속 벽암록>을 창작중에 있다. 특히 무명이라는 삶의 한 고비를 넘기며 바라본 자아와 세계와의 합일을 그려내고 있어 이전의 작품세계와는 또다른 서정을 예고하고 있다.

나무는 끝없이 자라고 사람은 끝없이 찾아 헤맨다. 파도는 찰라마다 태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죽어간다.

-속 벽암록 57- 위 시에서 보여주듯이 압축적인 4행시로 선적 깨달음을 향한 도정에서 빛어지는 무명 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87 번까지 마무리된 <속 벽암록>은 곧 100번까지 완성해 영어와 불어 그리스어로 동시 펴낼 예정이다. 장찬주씨는 산동화집 <샘물과 바가지>(전3권)를 '열린세

화제의 책

깨달음의 밥그릇

'솔름 또는 외로움'이 주조를 이루는 삶의 배경음악에 휩싸였던 역은이(시인, 서강대학교 수·국문학)가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기쁨 또는 자유로움'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담았다. '내가 증전에 배운 것들과는 열매가 다른 새로운 것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역은이는 밝혔다.

이 책은 '소리없는 문' '사랑하는 사람' '밥그릇' 등 여섯 큰

예화 통해 즐겁게 사는 길 안내



갈래 안에 57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삶의 이렇저런 국면에서 흔히 빛어지는 사소한 삐걱거림에 대한 풍부한 예화를 실미로 하여 읽는 이에게 사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즐거움 기쁨 배움 너그러운 희망 같은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큰 결론에 이른다. 석필출판사, 6천원.

새로 나온 책

▲법구경 상·하(리즈니쉬 강의)=현대기 낭은 최고의 성자로 불리우는 오소 라즈니쉬의 법구경 강의. 법구경을 재해석하여 현대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역자는 이 책을 주석서나 해설서가 아니고 붓다의 이음을 빌린 또하나의 법구경이라고 밝힌다.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각권 6천5백원.

▲엑스 엑스(라즈니쉬 강의)=라즈니쉬의 여러 책들 속에서 가려뽑아 엮은 자전적 철학수집집. 이 책에 실린 153편의 우화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며, 또한 얼마나 비자신적인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전해준다. 현민사, 박상준 옮김, 6천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홍명 지음)=지리산에 은거하며 수행과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저자의 에세이집. 불교와 도교의 이치, 세간 철학의식과 문화세계를 다룬 이 책을 통해 홍명스님은 세상을 보는 지

혜를 전해주는 한편 진실한 삶을 위한 자기반성의 노력을 촉구한다. 관음출판사, 6천원.

▲자린고비 약력이기(신현숙 역음)=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백유경'을 어린이들에게 알맞도록 고쳐쓰고 작품이다. 짧은 해설을 곁들인 동화모음집. '맛'을 내는 소금, '약'에 쓰는



발표, 등 백유경에 실린 98편의 비유를 통해 익살과 지혜로써 사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호풍출판사, 4천원.

▲마음을 비우게 재네가 부처(이동명 지음)=콘스님이 되리란 속가 아버지의 당부를 왜 새겨 쓴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 출가 전 속세의 인연과

명사추천 불서100선

유 마 경

자기완성이 세상의 구원임을 시사



김용운 <한양대학교 수학과>

하는 과정에는 그 상대적인 세계도 공경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관점을 바꾸어보면 달라지게 된다.

일부의 종성을 제도(調度)하면서도 모든 종성을 제도하는 것이기에 부처의 나라를 지상에 완성하려는 유마의 의지가 보인다.

「유마경」에서 필자가 가장 인상깊게 생각하는 대목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혼수사리와외 대목이다. 그 속에는 범에 대한 문답이 있다.

「종성이 병들면 보살이 병들고, 종성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

이해 종성이란, 또 보살이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종성은 모든 인간을 지목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여기서 말하는 종성이란 '모든 인간의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중의 무의식이다.

보살은 종성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선(善)의 의지이다. 사회, 크게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에는 항상 인류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것이 곧 보살의 뜻이다. 따라서 보살은 살생을 금하고 패륜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성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 선의 의지, 곧 보살은 병을 수박에 없는 것이다. 또한 종성의 병이 치유되고 종성이 건전해지면 보살의 마음도 나아진다. 이 말과 현대 우리사회의 양상을 빚대어 생각할 수 있다.

종생속에 살고 있는 율이 곧 보살

이 책을 읽으면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렵거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몇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선 유마경은 재미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마(維摩)와 정면 대결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그 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학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말문이 막히도록 유마에게 혼이난다.

독자들은 유마를 꺾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다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유마의 말에 동감하고말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율이 율이 말하는 내용은 모순처럼 보인다. 모두가 '공'이라 하면서도 형태의 정연성, 좋은 내용을 찬미한다. 절대경지에 도달

군사 통치시대, 권력은 부패하고 불신숭배가 성행했다. 덩달아 종성도 권력과 돈 위에서 날뛰었다.

결국 부패하는 것은 권력만이 아니다. 학생이 스승을 욕되게 하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나 기회만 있으면 부정한 돈에도 손을 댄다.

살인 강도의 사형수가, 나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돈을 출진 권력자는 왜 가만히 두고 내일이 사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하며 억울하다는 듯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종성이 크게 병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은 선을 이루고자 하는 보살도 병들어 힘을 잃는다. 종성은 공이면서도 공이 아닌 실체가 되어 스스로 제도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은 저마다의 종성이 진정한 삶의 자기완성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인도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1	무소유	법정	법무사	문학
2	불교사100장면	해봉	가람기획	불교사
3	새불교 원초불교	아진차 외	고요한소리	수행
4	나카무라	갈루빠하나	장경각	경전
5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린	대원정사	문학
6	할	생활선도일	한미당	선
7	한국차생활서	강승희	서울출판	교양
8	무문경	무문회개	경서원	선
9	천수경	무비들이	불일	경전
10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효린	불교사

구입문의: (02)737-0695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트론)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절집기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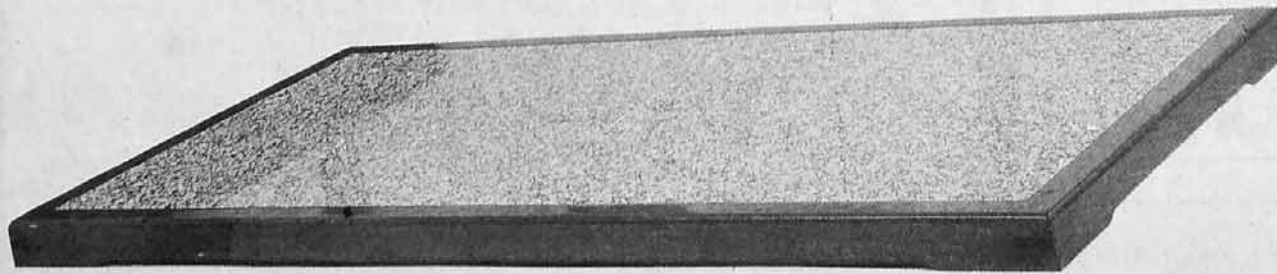
-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트론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점진적효과로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실용신안특허: 제068614호
·상표등록: 제245216호
판매처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OMR특허·전자파 장애 시험필



(규격): ·200×104×8
·200×138×80